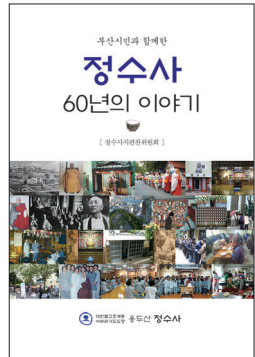


피난민 아픔 위로하며 이웃과 함께한 60년

정수사, 창건 60주년 맞아 사지 <부산 시민과 함께 한...> 발간

호국영령 위로하는 영가 기도 진행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 운영도



정수사 사지 <부산 시민과 함께 한...>의 표지

부산 정수사가 위치하고 있는 용두산은 한국 전쟁 이후 물려든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형성했던 곳이다. 하지만 1954년 대화재로 판자집들이 전소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우범지역으로 변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 공무원과 경찰들은 당시 범여사 조살이던 동산 스님을 찾아가 답을 구했고 스님은 부처님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하면 부산 불교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답해준다. 따라서 1956년 대승불교회가 세워졌고 이후 대승선원이라는 명칭을 거쳐, 성철 스님이 명명해준 현재의 정수사로 거듭나며 순국 영령들을 위한 영가기도와 무료급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해 왔다.

도심포교를 위해 매진해온 정수사(주지 일준)가 창건 60주년을 맞아 사지(寺誌)를 발간하고 9월 22일 법요식을 갖는다. 이에 정수사는 8월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지 <부산 시민과 함께 한 정수사 60년의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정수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주지 일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주지 일준 스님은 “부산 시민과 함께 해온 60년을 밑거름으로 삼고 ‘봉사하는 정수사, 열린 정수사’로 자리매김하며 개산 100주년의 초석으로 삼고자 부족함을 무릅쓰고 정수사 사지를 발간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책 <부산 시민과 함께 한 정수사 60년의 이야기>는 동산 대종사와 성철 스님의 중생제도 원력이 깃든 정수사의 역사와 현황을 총 정리한 내용으로 △용두산과 정수사 창건 △정수사의 정신적 기둥-동산 큰 스님과 성철 큰 스님 △정수사의 역사 △함께 하는 행복과 기쁨 △나를 채우고 비우는 법회와 기도 △열린 정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 일준 스님은 “공식적인 기록문서가 없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도량으로 그 가치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책을 편찬했다”며 “특히 사육신 원택 스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많은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 책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의 법보시로 제작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일을 해낸 주지 일준 스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평소 스님의 안목과 열정으로 정수사를 더욱 빛나게 하여 활기찬 문화 공간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사는 1956년 대승불교회라는 이름으로 상량식이 봉행됐고 이후 대승선원을 거쳐 성철스님이 지어준 현재의 정수사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함께해오고 있다. 특히, 8·15 광복 이후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산 경남 출신 무연고 전몰



정수사 주지 일준 스님(왼쪽)이 원택 스님에게 정수사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및 순직 경찰관 영령들의 위패를 모셔 지금까지 호국 영령을 위한 영가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관음기도와 참회 및 절기도도 끊이지 않는다. 또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량으로 백팔대참회, 능엄주, 아미타 기도, 3천배 등 수행정진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성철 스님의 ‘남 모르게 남을 도움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용두산을 찾는 노숙자 및 걸인들을 위해 음식을 나뉘었으며 1999년 6월 19일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을 본격적으로 개원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현재 기쁨의 집에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400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봉사자만 해도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0여 명의 자원봉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지 일준 스님은 앞으로 ‘봉사하는 정수사, 열린 정수사’로 자리 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정수사는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 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산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법당을 찾고 참배를 하고 있

다”며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어 외국어로 표기된 정수사 소개 및 참배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벽화와 탱화 불사와 전통 가람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지붕 불사도 진행해 사찰의 격에 맞는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정수사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와 부산을 대표했던 용두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사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롭게 편역을 새기고 로고도 제작했다.

일준 스님은 “옛날에는 용두산의 이름이 부산이었다. 부산을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를 담은 곳이니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부산 정수사(釜山 正修寺)’로 새롭게 편역을 새겼다”며 “로고는 성철 스님의 친필 원상 안에 가마솥 푸경을 넣어 제작했다. 개산 100년을 넘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한편, 정수사는 오는 9월 22일 오전 11시 원택 스님을 비롯한 성철 문도 스님과 부산에서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 및 내빈을 모신 가운데 ‘정수사 창건 60년 개산 대제 법요식’을 봉행한다. **하성미 기자**

동산 대종사 추모사진집 ‘감인대’ 봉정

열반 50주년 맞아 300여 장 흑백사진 담아

한국 불교 평화 운동의 초석을 다진 동산 대종사의 사진집 <감인대>(堪忍待)봉정식이 열렸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는 8월 15일 범어사 대웅전에서 동산 대종사 추모 사진집 봉정식을 봉행하고 사진집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봉정식을 거행, 일제시대 흔들렸던 수행 가풍의 면모를 회복하고 현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동산 대종사 삶을 더욱 뜻 깊게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의원 정관 스님, 명선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동산 대종사의 제자선 선대 스님, 대성 스님과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금정총림 범어사의 청정 수행 가풍 회복을 위해 정진한 동산 대종사의 유훈을 저희 사부대중이 화합과 배려 속에 계승할 수 있도록 대자대비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한다”며 고별문을 낭독했다.

문도를 대표해 금정총림 범어사 전제사 정관 스님은 “광복 7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아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 동산 스님과 관련한 불사



동산 대종사 추모 사진집 봉정식 장면

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롭게 발간된 사진집 <감인대>는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기획한 것이다. 사진집에는 동산 스님의 일상, 수행 이야기 및 정진, 한국불교의 역사를 포함해 300여 편의 흑백 컬러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편, 범어사는 동산 스님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며 동산 스님의 사진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에게 전담해 감동을 안겨주었다. 전시회 후 범어사는 선대 스님의 열반, 법안 스님이 보내온 ‘덕명 스님 사진첩’, 그리고 석공 스님이 30여 년간 모아온 사진 자료를 수집 정리해 사진집 <감인대>를 발간했다. **하성미 기자**

대구 불광사 영산대재 및 만발공양 개최

8월 14일 경내 만발보전서

대구 수성구 옥수동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 은해사 주지)은 우란분절을 앞두고 8월 14일 경내 만발보전에서 영산대재 및 만발공양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소임 스님들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 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부산무형문화재 청하 스님의 2인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했다.

이날 동참 신도들은 육발공양과 함께 은해사, 불광사 대종스님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만발공양과 40여 벌의 승복을 지어 헌공

하는 의식을 통해 여름안거중인 스님들의 건강과 원만한 수행정진 성취를 발원했다.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올리는 갖가지 공양을 만발공양이라하는데 이는 만개의 발우라는 뜻으로 수많은 공양을 의미한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수행자를 보호하는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여의고자 한다”며 만발공양의 의미를 전했다.

손은철 대구지장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은 8월 14일 경내 만발보전에서 영산대재 및 만발공양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육발공양 모습.

미타선원 애니어그램 명상상담 강좌 진행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2015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으로 ‘애니어그램에 기초한 고집별도 명상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부산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미타선원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명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교육 일정은 9월 7일~9일이며 강사로는 주지 하림 스님(명상심리상담지도자)이 직접 나선다.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한국명상심리사

담학회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받는다.

미타선원은 “주지 스님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주중에 교육 시간을 기획했다”며 “특히 연수 내용이 명상이어서 실행 상담에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활용 가치가 높아 스님들께 더욱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강의 내용은 △성격유형 검사와 애니어그램이란 △불편한 경험 나누기(기) 등이 다. (051)253-8680

하성미 기자

환희불교복지대학, 호스피스교육과정 모집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희사를 실천하고 있는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제34기 호스피스교육과정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15일~11월 27일 2개월 진행되며 매주 화, 금 오후 2시~5시에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료 후에는 수료증 수여, 봉사활동 지원 및 유급활동도 아울러 지원한다.

환희불교복지대학은 “199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456명이 졸업하여, 약 400여 명의 호스피스가 복지시설에서 활동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4기 호스피스교육과정 개강을 기념해 환희불교복지대학은 9월 15일 오후 2시 환희노인요양원 5층 강당에서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의 ‘화(火)를 다스리는 비결’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051)203-9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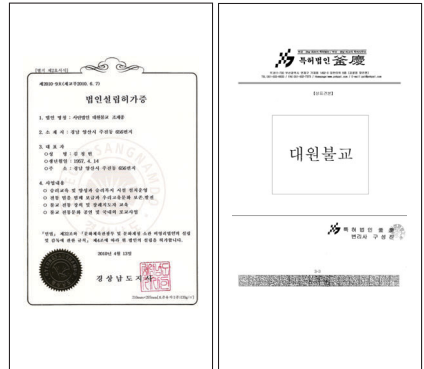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청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 무 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증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 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겸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회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문화원	포교원	기획원	교육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장 석철산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전북총무원장 석철산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미산총무원장 석법경 강서총무원장 석해륜		대전총무원장 석법오
총무원		중앙위원회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해주 부 원 장 석옥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시합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운오 의전부장 석명오 바나회회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회 황정재 중앙미술위원회 엄대일 중앙봉사위원회 대자비 중앙예술위원회 이선혜 불사추진위원회 김홍중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해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